성　　명 : 趙 永 植

호　　: 미원(美源)
현 주 소 : 서울 종로구 명륜동 1가 7-36
생년월일 : 1921년 11월 22일
가족관계 : 오정명 여사와 결혼
　　2남 2녀(조정원, 조여원, 조미연, 조인원)

<학력>
서울 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 명예 법학박사
필리핀 마닐라 시립대학교 명예 인문학박사
부산 국립대학교 명예 법학박사
멕시코 과달라하라 대학교 명예박사
미국 노쓰 캐롤라이나 대학교 명예 인문학박사
일본 대학교 명예 상학박사
모스크바 국립대학교 명예 평화철학박사
브라질 멕켄지 대학교 명예박사
일본 소카 대학교 명예 법학박사 외 34개 명예박사학위

<현직>
경희대학교 설립자 겸 학원장
세계대학총장회(IAUP) 설립자, 영구명예회장 및 동 세계대학총장회　　산하 평화협의회(HCP) 의장
인류사회재건 연구원, 국제평화 연구소, 밝은사회문제 연구소 총재
밝은사회 국제클럽(GCS International) 국제본부 총재
오토피아 평화재단 총재

<수상>
인류 최고영예의 장, 함마슐트상, 세계대학총장회 세계평화대상, UN 평화훈장, 스웨덴 왕실훈장, 아인시타인 평화상, 이란 왕실훈장, 필리핀 정부 라칸 오브 시카투나 훈장, 중화민국 정부 최고 화하훈장, 평화공적 유엔특별상, 비폭력을 위한 마하트마 간디상, 대한민국 정부 국민 훈장 무궁화장, 등

<업적>

• 조영식 박사의 제안에 따라 유엔이 세계평화의 날과 해 제정

• 한국 일천만이산가족 재회촉구를 위한 범세계서명운동을 통해 최다국가·최다서명 세계기록을(전세계 153개국에서 2천 1백만 2천 1백 9십 2명) 수립한 공을 인정받아 세계 기네스협회로부터 인증서 수여

• 한·미간의 우호 증진에 대한 조영식 박사의 공을 인정하여 미국 몬타나 주정부가 "한국 우정의 달"을 선포하였고 알라스카 주정부는 "한국·알래스카 교육 협력 주간"을 선포

• 한·중 간의 학술 및 문화교류 증진에 대한 조영식 박사의 공헌을 인정하여 중화민국 문화 대학교가 "경희당" 헌당

• 조영식 박사의 세계평화구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1989년 8월 10일 미국 국회의사당에 조영식 박사의 이름으로 성조기 게양

• 아르헨티나 빨레르모대학이 평화연구에 대한 조영식 박사의 공을 인정하여 "조영식 평화강좌"를 개설하고 "조영식 평화전당"을 헌당

• 멕시코 과달라하라대학이 세계평화에 대한 조영식 박사의 공을 인정하여 "조영식 평화강당"을 헌당

• 몽골 과학원 명예 회원으로 피선

• "Pax UN" 이론을 개발하여 UN에 제출하여 UN의 평화정책에 반영됨

• "제3 민주혁명" 이론을 개발한 공을 인정받아 독립국가연합(CIS) 학술원 정회원으로 피선

• 국제 인명사전협회(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로부터 20세기의 인물상(세계평화 부문) 수상(1세기에 1회 수여)

등 17가지 업적이 국제적으로 인정

* 상기 상과 업적을 포함하여 전세계로부터 총 100여개의 상(훈장) 수상(수훈)

<저서>

『민주주의 자유론』, 『우리도 잘 살 수 있다』, 『문화세계 창조』, 『교육을 통한 세계평화』, 『인류사회의 재건』, 『오토피아』, 『세계평화: 그 위대한 소명』, 『Pax UN을 통한 세계평화』, 『세계 평화대백과사전』(인류역사상 최초), 『지구촌의 평화』, 『동양의학대사전』 등의 저서와 120여편의 논문을 국내 및 국제회의에서 발표.

『하늘의 명상』, 『조국이여, 겨레여, 인류여』 외 다수의 시집 출간.

“목련화” 외 30여 곡의 노래 작시

<주요 국제회의 활동>

• 세계평화의 날과 해를 기념하는 연례 국제 평화회의 주관 개최(1982년부터 현재까지)
• “모스크바 2+4(미국, 소련, 중국, 일본, 한국, 북한) 국제회의” 개최(정부차원에서도 실패한 것을 민간주도로 개최한 것으로,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역사상 최초로 개최된 국제회의)
• GCS(Global Cooperation Society) International의 연차대회 주관 개최(1978년부터 현재까지)
• 한국 일천만 이산가족 재회촉구 대결의대회 및 학술세미나 주관 개최(1983년부터 2000년까지)

* 상기 국제회의들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75개 국제회의를 주재하였으며 27개 국내 및 국제회의에 참가함.

‘질병 없는 인류사회 구현’ 위해 경희의료원 건립에 열정 쏟아,

동·서의학 접목 '제3의학' 창안,

1971년 당시 동양최대 1,000 병상 규모의 병원 건립,
서양의학과 동양의학 접목해 '의과학 경희'의 독보적 전통 확립,

1971년 10월 5일 경희의료원이 착공 6년 5개월 만에 준공됐다. 경희학원의 건설 역사상 가장 많은 자금(30억 원)과 시간이 투입된 공사였다. 좀 더 쉽게 병원을 지을 수도 있었다. 당시 국내의 유명 대학 병원들은 350~500병상 정도였다. 그러나 조영식 박사는 1,000병상 규모의 동양 최대 병원을 원했다. 단순히 크기에 집착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인구 증가와 경제 성장에 따라 장차 의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질병을 퇴치해 보다 나은 인류사회 건설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병원 규모가 현재가 아닌 미래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의과대학 설립은 1955년 경희가 종합대학으로 승격할 무렵 이미 조영식 박사의 구상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문교부로부터 신규 설립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아 10년 가까이 진척이 없었다. 그러던 차에 행림재단 소유의 동양의학대학이 운영난에 봉착해 합병 대상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동양의학대학은 한의학 분야 국내 유일의 단과대학이었다. 개의 대학이 인수 경쟁에 뛰어들었다. 협상은 5개월 이상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관청을 앞세운 방해공작도 있었다. 그러나 1965년 3월 행림재단이사회는 경희의 인수합병을 결의했다. 그해 12월 문교부는 경희대학교의 의과대학 신설을 인가했다. 한 달 뒤인 4월 27일 서울캠퍼스 노천극장에서 동양의과대학 합병식이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경희의료원 착공식이 거행됐다.

1971.10.5일 세계최초의 양·한방 복합의료기관 경희의료원 개원,
2006.6.12일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개원,

조영식 박사가 경희의료원 건설에 쏟은 열정은 상상을 넘는다. 최신 의료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전문서적을 구해서 읽는 한편, 미국·일본·유럽의 병원을 방문해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수많은 품목의 국제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노력도 필요했다.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출근길에 한 차례, 낮 시간에는 수시로, 퇴근길에 또 한 차례, 하루 세 번 이상 현장을 돌아보았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18층 건물을 오르내리며 구석구석을 살피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병원, 치과대학병원, 한의과대학병원 등 3개 병원으로 구성된 경희의료원은 이런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 준공식에서 조영식 박사는 “경희의료원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국민의 것, 국가의 것”이라면서 “우리의 노력과 정열이 깃든 경희의료원을 국민에게 헌납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선언에 드러나 있듯이, 의과대학과 병원 설립에 대한 그의 집념은 질병 없는 인류사회 건설을 위한 봉사정신에서 우러난 것이었다.

대학은 본질적으로 고등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학술기관이다. 경희대학교는 한 발 더 나아가 봉사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대학의 제3의 사명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실천해왔다. 그런 뜻에서 '교육, 연구, 진료, 봉사'를 표방한 경희의료원은 경희의 정체성을 함축하고 있다.

1972년 경희의료원 세계최초 무약물 침술마취 개복수술 성공, 1999년 중의대사전 압도하는 <동양의학대사전> 발간,

경희의료원 설립에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다. 조영식 박사는 동양의학대학을 인수하기에 앞서 허준의 <동의보감>과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 등 동양의학 고전을 섭렵했다. <동의수세보원>을 읽고 난 뒤 100년 전에 이제마와 같은 위대한 의철학자(醫哲學者)가 있었다는 사실에 감탄했다. 이때 조영식 박사는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을 접목시켜 '제3의학'을 창출하겠다는 뜻을 세웠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독자적 발전과 함께 이들을 창조적으로 융합하는 '의과학 경희'의 전통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동·서의학 협진은 경희의료원 개원 초기부터 큰 성과를 거두었다. 1972년 9월 9일 경희 의료진은 침술마취에 의한 맹장 수술에 성공했다. 침술 마취 수술로는 중국, 일본, 미국에 이은 네 번째 사례이지만, 약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개복 수술에 성공한 것은 세계 최초의 일이었다.
'제3의학'을 창안하겠다는 경희의 의지는 2006년 6월 12일 강동경희대학교병원(옛 동서신의학병원) 건립으로 결실을 맺었다. 1991년 4월 25일 기공식에서 조영식 박사는 "동서의학의 협력을 통하여 2000년대를 주도하는 첨단 의학의 기수로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설립 목적"이라고 말한 뒤 "중국, 인도, 이집트 의학까지 흡수하여 실질적인 제3 의학을 완성함으로써 선진국 어느 병원에 못지 않은 21세기 최고의 병원으로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동양의학대사전> 간행도 '제3의학' 창출에 대한 의지가 담긴 사업이었다. 1992년부터 7년간의 작업을 거쳐 개교 50주년을 맞은 1999년 완성을 보았다. 제작을 시작할 당시 한국에는 전통의학과 관련한 사전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중국에서 발행된 <중의대사전>, 북한의 <동의학사전>, 일본의 <동양의학대사전> 등이 있었으나 백과사전(Encyclopedia)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지 못했다. 전 12권으로 발행된 경희의 <동양의학대사전>은 표제어가 5만 2,500여 항목에 이르는 등 <중의대사전>을 압도하는 것이었다. 사전 편찬에 투자된 자금만 해도 30억 원이 넘었다. <동양의학대사전> 편찬은 한의학 발전의 선두주자라는 경희의 사명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1,781병상, 연간 외래환자 200만명, 입원환자 53만명 규모의 세계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성장

이로써 경희대학교는 세계 최초로 6개 의학계열 교육기관(의과대학·치과대학·한의과대학·약학대학·간호과학대학,동서의학대학원) 및 의학·치과·한방 복합의료기관인 경희대학교 의료기관(경희의료원,강동경희대학교병원)을 설립하여 창학정신인 『문화세계의 창조』와 『질병 없는 인류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해왔다. 최첨단 현대의학과 5천년 전통을 계승한 경희한의학은 물론, 이 두 가지 의학을 창조적으로 결합한 양·한방협진(동서협진)이라는 독특한 진료시스템을 개척해온 경희대학교 의료기관은 현재 1,781병상의 고급 의료시설을 갖추고 연간 외래환자 200만명, 입원환자 53만명, 수술환자 4만8천건을 진료하는 세계 수준의 초일류 의료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다.